

제十八장 반역에 대한심판

크게권세잇는천사가나려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
 광으로 세상이 환한지라 장대한 소리로 불러가르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
 벨론』이어 사귀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귀신의 옥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새의가
 친곳이 되었도다 그^㉓ 음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술을 여러 나라이 먹고
 무너졌으며 또 세상의 왕들이 저로 더부러 음행하였으며 세상 상고들도 저의 사
 처한 권세를 인하여 부요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드르매 하늘로서 또 다른 소리가
 있어 가르대 내 백성들아 곳 그 가운데서 나와서 저와 합세 죄의 참여하지말고
 저희 바들 재앙을 면하라 그^㉔ 죄악은 하늘에 사뭇찮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
 을 기억하신지라 저가 준대로 대신 주고 그 행위대로 두감절을 감해주고 그 부
 잇는 잔에는 감절이나 더 부어주라 저가 어찌케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어찌
 케 사치한것을 식라 고난과 애통으로 감해주라 대개 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안진자요 파부가 아니라 걸단코 애통한대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런^㉕
 고로 하르사이에 그 재앙이 이르니 곳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저가 또한 불에



집 야 하 환 이 샅 세 은 로 별 귀 의 사 천 세

살우어저리니 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는 자시니라」

『요한』은 음녀가 붉은빛 증생을 탄 득시를 본 다음에 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데 그 영광으로 세상이 환하여지는 것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역하는 음녀로 표상한 교회를 위하여서도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한번 더 자비의 기별을 보내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천사는 장대한 소리로 부르짖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 이어……그 음녀의 음행으로 하여 무너졌으며 또 세상 의 왕들이 저로 더부러 음행하였으며 세상 상고들도 저의 사치한 권세를 인하여 부오하였도다」 하였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은 14장에서 이미 연구한 바와 가리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기별이다.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은 재림운동 이후로 오늘날까지에 파히 만치 않은 사람의 노력으로도 전 세계 각 나라 각 민족에게 전한 바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황금이나 권력의 후원이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바는 진실한 신도들의 단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계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주목하게 되었다. 본장 1절에 말한 천사도 세 천사의 사명을 가진 가운 단체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큰 권세를 가졌고 또는 그 영광으로 세상이 환한 것은 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마쳐져 될 시기에 이르러 특별한 능력과 빛이 더하여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이 전파될 것이니 그것은 곳 「내 백성들아 곳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이다. 이에 『바벨론』 가운데서 진리를 사모하는 만혼 사람이 참비출 보고 나오게 될 것이다. 과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교회는 순전한 진리를 쓰르지 아니하고 세속적 풍조를 만히 써 드므로 『바벨론』적 성질을 가졌는바 그런가운데라도 오이러 진리를 사랑하고 참된 신앙 생활을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이 업는것은 아니니 그들은 각각 단체에 있어서 소공과 빛의 직분을 행하는것이다. 그러다가 쓰리 이르러 복음의 비치 더욱 빛날새에 저희는 『바벨론』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숙한 명령에 의하여 그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단체 가운데 참가하게 될것이다. 그리하면 저희는 『바벨론』의 바들 재앙을 면하게 될것이니 대개 이 특별한 부르심은 마지막 날곱 재앙이 나리기 조끔전에 잇을 일이다.

그리고 음녀로 표상한 법왕권과 그 딸로 표상한 (十七〇五)법왕권을 쓰르는 여러 신교는 세속적 영화들 쓰라 사치하고 교만한대로 그만 큼 고난과 애痛的 감흥을 바들것이다. 또한 『바벨론』은 자고한 마음으로 스스로 니르기를 「나는 너희로 안존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중한대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것이다. 이 『바벨론』의 세력은 세상 권세로 더부러 련합하여 큰 일을 행하려 할것이니 十三장에서 이미 연구한대로 그 상하얏든 상처가 나으매 온 세상으로 자기를 쓰르게 할것이고 자기의 세운바 일요일을 온 세상으로 지키게 하되 이를 불손종하는자는 사형에 처하는 임법까지 제정할것이다. 이일은 천주 교회가 각과 신교의 근거가 되는 미국의 정권으로 더부러 약수하는때에 이루어질것이니 『바벨론』의 세력이 정점에 이르렀을때이다. 그새에 법왕권은 자고하여 「나는 너희로 안존자요 과부가 아니라」 할것이다. 그러나 그와가리 『바벨론』의 세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날곱 재앙이 저희에게 이를것이니 이 재앙은 하로 곳 一년동안에 나릴것이다.

『바벨론』의 바들보이

「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세상의 왕들이 저의 불꽃은 연기를 보고 위하야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 멀리 서서 가르대 화잇도다 화잇도다 크고 절고한 성 『바벨론』이여 一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세상의 상고들이 저를 보고 울고 애통하는것은 다시 그 불건을 사는자가 업습이라 그 불건은 금손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가음과 비단과 붉은옷가음과 각종 향옥들과 상아 기명들과 감진나무와 동과 철과 옥석으로 만든 기명들과 계피와 두구와 향물과 꿀과 향기로운 기름과 유향과 술과 기름과 고혼 밀가루와 밀과 증상과 양과 말과 수레와 종과 사람의 령혼이라 『바벨론』아 네 령혼의 략하든 과실이 내게서 새나며 맛있는것과 빚난 것들이 다 업서졌으나 사람이 반드시 보지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처부한 이 불건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야 가르대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아 본래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삼인것인데 그러케 풍성한것이 一시간에 다 망하였도다 여러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생애하는 사람들이 다 멀리 서서 그 불꽃은 연기를 보고 울고 가르대 이 큰 성과 비교할 성이여대 잇나노 하마 티살로써 버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야 불려가르대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 성아 바다

에서 배부리는자들이 너의 보배로움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재앙이 나리매 온저 교종과 무역이 중지될것이다. 조곰전까지도 증상의 표가 업는자 는 매대들을 못하게 하든 상고들이 지금은 재앙으로 인하여 아모도 볼견살 사람이 업 스므로 크게 애용하여 부르지져 가르대 「화잇도다 화잇도다 화잇도다 화잇도다」 그러케 풍성한것이 「시간 에 다 망하였도다」 할것이다. 또한 선인들도 항해와 무역으로 치부하였으나 이제 그 사 업이 다 무너졌으므로 「화잇도다 화잇도다」 하고 탄식할것이다.

그리고 「十四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맛있는 과실과 아름다운 채소들이 흉년으로 인 하여 업서질것인데 그 후로는 사람들이 다시 그러한 아름다운 채소와 과실들을 맛볼 수 업는것이다.

『바벨론』에 나리는 님굽재앙은 세계적이오 또는 최후적이 될것이니 하나님의 부르심 에 응하지 안은자들은 이 재앙으로 인하여 크게 탄식하고 애용하게 될것이다. 잠간생 각하여 보라. 약하고 독한 현대가 각 사람의 몸 에 나고 감과 바다물이 죽은자의 피 와가리 되며 해가 곡식과 사람을 불로 태울터인데 금과 은이 도모지 저희를 그 재 앙가운데서 진질수 업슬것이니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할것인가? 상상만하야도 끔찍한 일 이다. 그런즉 이러한 재앙을 맛난자들이 슬피하고 통곡할것은 말할것도 업는일이다.

성도들이즐거워함

「하늘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이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신 원하시는 심판을 저희게 하엿나니라 하더라 이에 한 장대한 천사가 큰 매돌기든 들을 드리 바다에 던져가르대 큰성 『바벨론』이 이가리 몹시 세리져 반드시 다시 보지못하리로다 거문고 라는자와 풍류하는자와 통소부는자와 라발부는자들의 소리가 다시 네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무른 무손일을 하는자들지 다시 네가운데 보이 지아니하고 또 매돌소리가 다시 네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비치 다시 네가운데서 비치이지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시 네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 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세상의 왕족이라 네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한바 되었 도다 여러 선지자와 성도들과 및 서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자의 피가 이 성중에 서 보엿나니라 하더라」

『바벨론』의 멸망은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승리이다. 『바벨론』의 세력은 여러 시대동 안에 정전하고 걸손한 하나님의 백성과 죄악을 미워하는 무고한 성도들을 괴롭게 하 고 압박하였섯다. 그러는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이 이르러 저희를 멸하였으 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이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었다. 또한 성도들의 크게 즐거워할 리유는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속 박하였든 저희가 주의 구속하심을 입을터임이다.

『바벨론』은 한 큰 매돌이 바다에 던진바 되는것처럼 아조 몰락하야 다시는 세오르 지못할것이니 그 가운데서 연락과 풍류의 소리가 다시 잇지아니할것이다. 그리하야 온 세계는 다시 미혹과 속임에 빠지지 아니하게 될것이다.

二十四절에는 「여러 선지자와 성도들과 및 써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나니라」 하고 결사를 하였다. 그 말씀으로써 우리는 이 예언이 무엇에 관
 한 예언임을 알수있다. 『사단』의 교묘한 음동은 여러 시대를 통하여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 피를 흘리게 하였지마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 저 바려두지 아니하실것을 확
 실히 보증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써
 르는자들은 이 말씀으로 더욱 용기를 내일것이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참도리를 빼앗지못
 하고 한갓 사람의 교훈과 유전만을 써르는 『바벨론』적 그리스도교인은 자기의 주위환
 경을 자세히 살피고 맹성하야 『바벨론』의 운명을 면하도록 힘쓸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기를 「내 백성들이 곳 그 가운데서 나와서 저와 함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의
 바들 재앙을 면하라」 하신다.